

退溪李滉의 畫題에 대하여

孟 仁 在

一、

七五年 二月에 「退尤二先生眞蹟」이 調査(李東歡成大教授、專門委員) 되고 寶物 第五八五號로 指定된 일이 있었다. 이것은 退溪의 手蹟인 「晦菴書節要序」에 尤菴의 題跋(二回)라 謙齋의 그림인 「溪土靜居」 「舞鳳山中」 「楓溪遺宅」 「仁谷精舍」 四葉과 槎川 李秉淵의 七言詩, 그리고 謙齋의 子인 萬滄의 識語, 鼓山 任憲晦의 後識, 頴雲 金容鎮의 題書等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書畫帖이었다. 특히 謙齋의 그림은 退溪의 手蹟과 陶山書堂에서의 退溪의 行蹟에 대한 追畫 乃至 獻畫의 性格을 띤 實景寫生 作品으로서 時空을 超越한 脈絡의 交流를 生生하게 느끼게 하는 한 본보기였다고 생각된다. 여기 紹介하는 山水二幅과 退溪의 畫題二葉도 退尤二先生眞蹟과는 形式이 좀 다르긴 하나 書畫相互의 一致의 관계에서 본다면 時空의 遠近과 先書後畫와 先書後畫의 차이가 있을 뿐 그 一致的存在에 있어서는 어떤 距離가 보이지 않는 一例라고 생각되어 된다. 또한 退溪와 同代이거나 그 以前의 畫蹟으로 생각되는 二幅의 山水畫에 退溪의 題詩二首가 그대로 傳存되어 온 예는 寡聞의 탓이긴 하겠으나 從來에 보지 못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退溪集 가운데의 畫題(朝鮮畫論集成、高裕燮編)는 모두 二十二種에 이르지만 이들 가운데 元來의 退溪墨蹟으로서 傳來되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역시 寡聞의 탓으로 알 수가 없다. 이에 더구나 題에 畫까지 함께 하는 예에 이르러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일 듯하다. 지금

退溪集에 실린 畫題(高裕燮 前掲書)를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一、李仲久에 答한 武夷圖題跋 卷十一
二、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이 두 題跋은 內容이 다른 것으로 보아 李仲久同一人의 家藏武夷九曲圖一例를 두고 時期를 달리하여지는 跋記인 듯하다. 앞에 것은 答李仲久라 했으므로 역시 跋文을 짓게 된 계제가 달랐던 것 같으므로 兩者를 別個로 봄이 옳을 듯하다.

三、盧仁甫에 答한 畫像記(卷十)로서 畫像이 文烈公(諡號)의 祠堂에 奉安되었던 것인 듯 하나 高麗와 朝鮮初에 몇분의 文烈公이 있었으므로 어느 분 것인지는 알 수 없다(例文烈、金富軾、朴寅亮、李兆年、李季旬、韓尙質、韓安仁等)

四、影堂記(卷二十一)인 듯 하며 前記盧仁甫에 答한 畫像記와 관련이 되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五、鄭子中에 答한 書記

六、鄭子中求題屏畫八絶이라 있는데 앞의 「答」한 것과 여기의 「求題」한 것과의 관련이 직접은 없는 것인 지도 모르겠다. 앞의 것은 그림의 內容이 不明이고 뒤의 것은 商山四皓、桐江垂釣、草廬三顧、江東歸帆、栗里隱居、華山墜驢、濂溪愛蓮、孤山梅隱 等이다.
七、金惇叙에 答한 書評(卷一八)인 듯 하다.

八、題靈川子墨竹(卷二)이라 하였는데 靈川子申潛은 墨竹의 名手로 退溪보다는 十年 年上이다.

九、題金秀珍所藏蔡居敬墨梅二首。

十、郭景靜城主求題山水畫幅五絶。

十一、星山李子發號休叟索題 申元亮畫十竹十絶。申元亮은 前出靈川子申潛。

十二、題金上舍慎仲畫幅八絶

十三、題畫二牛二絶

十四、題柳彥遇河隈畫并序

十五、竹堂柳牧春辰全學士書墨竹

十六、山水圖七言詩

十七、(金)季珍奇杜城令畫二鷹求題詩

十八、題靈川子墨竹二絕與石川松岡分題同賦

十九、題靈川申潛畫竹

二十、題靈川畫竹八絕

二十一、題柳而得畫二牛圖

二十二、題申世霖畫八絕

以上二十二例에 이번의 題詩二首(即二葉)를 添加한다면 二十三例가 될 것인데 二十二例는 모두 退溪集이나 그 續集에 올려져 있지만 이번의 二首는 退溪集에는 실려있지 않은 점에서 그 所由來를 유달리 생각해 하는 것이다. 또 退溪의 畫題眞蹟이 그대로 傳存하는 예는 매우 보기 어려운 터에 이번 二首는 手蹟眞本이 實際로 傳存해 왔다는 점에서 異彩로운 存在로 評定이 冼직한 對象이라 하겠다.

그런데 退溪와 그 畫題와의 關係를 通觀해 보면 먼저 畫題의 對象인 그림은 대개 退溪生存 當代에 生을 함께 하던 이들의 畫蹟인 듯이 보이는 데 그것은 물론 그중 畫人을 알 수 없는 예가 大部分이긴 하지만具體的으로 記錄이 된 畫人名若干例를 보면 退溪와 在世를 함께 한 이들 뿐인 점에서도 짐작이 된다고 하겠다. 畫人名이 明記된 예는 다음과 같다.

申 潛(靈川子、成宗二十二年、一四九一年生、明宗九年一五五四年卒)

蔡居敬(無逸、燕山君二年、一四九六年生、明宗元年一五四六年卒)

柳辰全(竹堂、燕山君三年、一四九七年生、明宗十六年一五六一年卒)

李巖(靜仲、杜城令、燕山君五年一四九九年生、卒年未詳)

申世霖(仁霖、中宗十六年一五二一年生、宣祖十六年一五八三年卒、官

圖書署別提、寧越郡守)

위에서 보면 明記된 畫人은 모두 五人뿐이며 이들은 모두 退溪에게는 近十年 以內의 年長者들이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 또한 申世霖을 除外한

네 畫人은 모두 職業畫員이 아닌 士夫의 身分으로써 그 그림은 모두 餘技로 그려졌던 것임도 아울러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畫題와 그 內容으로 보면 四君子 七例、故事類 五例、山水五例、翎毛二例、影幀關係二例、畫牛(故事)二例、都合二十三例인데 鑑戒의 故事類와 士人餘技로서 四君子類가 比重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時流라고도 할 수 있겠고 나아가서는 退溪의 周邊性格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靈川子와 申世霖、杜城令은 지금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畫人일 뿐 아니라 그 畫蹟傳存의 稀貴한 점에서 共通點을 갖는 比重이 큰 存在임은 世人周知의 일이다. 그런데 畫人과 畫人 아닌 人物들로서 退溪에게 求題하여 그 畫記를 받아 낸 이들은 모두 十二人에 이르고 그중 六人은 退溪의 門下로 생각되는 人物들이며 나머지 退溪와 交友關係가 있거나 交游가 없는 혹은 交流가 있을지도 모를 畫人들임도 看過할 수 없는 점이라 하겠다.

退溪의 門下 六人은 東儒師友餘①退溪先生門人七十二人中에 포함된 黃仲舉(名俊良 號錦溪 平海人 官星州牧使、中宗十二年一五一七—明宗十八年一五六三)

鄭子中(名惟一號文峰 東萊人 中宗二十七年—宣祖九年一五七六、官眞寶禮安榮川(榮州)縣監、大司諫)

柳而得(名雲龍、後改應見 號謙庵 豐山人 官定州清州牧使 中宗三十四年一五三九—宣祖三十四年一六〇一)

金惇叙(名富倫 號雪月堂 光州人 養正堂之弟 官縣監 中宗二十六年一五三一—宣祖三十一年一五九八)

金彥遇(名富弼 號後湖堂 光山人 累拜參奉不就 中宗十一年一五一六—宣祖十年一五七七)

金愼中(名富儀 號挹清 後湖堂弟 官參奉 中宗二十年、五二五—宣祖十五年一五八二)等 六人이다. 이 中에 黃仲舉는 退溪보다 七年이나 먼저 他界하였는데 退溪 손주 作成한 行狀이 東儒友錄에 실려 있다.

却說 前出 退溪의 諸畫題跋의 性格은 畫目에 따라 몇가지로 區分됨을

보았거니와 그 中에는 答盧仁甫庚麟文에서 처럼 畫像의 形式論(2)을 말한 대목이 있으며 아울러 影堂論(3)을 간략히 덧붙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 答李仲久(甲子, 卷十一) 武夷圖跋에서는 退溪自身이 武夷圖를 愛賞한다는 것을 안 崔子粹가 倩工하여 別摹하는 것을 許하였다고 하여 自身の 愛賞 愛畫하는 目을 分明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退溪의 問學과 그 生活精神의 境界를 뒷받침하는 宜當 그럴만한 傾向을 端的으로 나타낸 例라 할 수 있겠다(4). 또 李仲久家藏 武夷九曲圖跋에서는 「朱子不得有 爲於天下 卒至卷懷棲遯於大隱屏下」라 하여 武夷圖의 由來를 말하고 「世傳武夷圖多矣 餘首在京師求得數本 倩名書摹來 由其元本疎略 傳亦未 盡 吾友李君仲久近寄一本來 滿目雲烟精妙曲盡 耳邊恍若聞擢歌矣」라 하여 當世 武夷圖의 流行과 그 그림의 됨됨에 대하여도 간략히 言及하고 있는 데 唯獨 이 跋文에만은 末尾에 「嘉靖甲子二月初吉眞城李滉謹跋(即 明宗十九年 一五六四 退溪六十三歲)이라 記年하였다.

黃仲學 求題畫 十幅(陋卷筆瓢、舞雲風詠 桐江垂釣 栗里歸耕 濂溪愛蓮 孤山詠梅 洛社獨樂 武夷九曲 孔明草廬 康節兒車)은 鄒子中求題屏畫、八絶(商山四皓 桐江垂釣 草廬三顧 江東歸帆 栗里隱居 華山塗驢 濂溪愛蓮 孤山梅隱)의 경우와 함께 大同小異한 中國故事가 素材인데 前出 武夷圖와 아울러 當世畫題의 傾向과 之人趣向을 대략 짐작케 하는 例라 하겠다. 이러한 素材로는 「題金上舍慎中 畫幅八色」의 경우에도 類似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靈川子 申潛의 畫竹題詩는 五種에 이르러 크게 括目할 만한데 그중 畫竹과 靈川子 자신은 一身同心으로 看破한 一首는 「竹與靈川本一身 一身變化儘通神 可憐滿幅清虛影 疑是靈川自寫眞」이라 激賞하였으며 一身、通神、清虛影 自寫眞等 寫竹의 本領과 心畫의 本質을 看破하는 評詩라 하겠다.

二、

위에 잠깐 退溪의 若干의 畫題 가운데 中國의 故事가 比較的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았거니와 또 退溪의 題詩二首와 거기 붙여져 있던 二幅의 山水畫가 함께 傳來하고 있음도 말하였다. 紙質은 楮紙로서 壯紙라 할 수 있는 것이었고 詩書二葉의 크기는 三六、〇×二四、四cm로서 二葉이 똑 같으며 畫二葉은 詩書二葉보다 훨씬 커서 四五、六×四七、二(廣)cm、四六、〇×四七、三(廣)cm로서 역시 같은 規格이다. 山水畫二葉은 자기 中心에 한번 접했던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半을 접었던 詩書折帖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二首의 題詩는 다음과 같다.

一、蓮獄峩々竹院空 何人栖遯欲長終 洞門不是羊裘輩 那肯來尋絕世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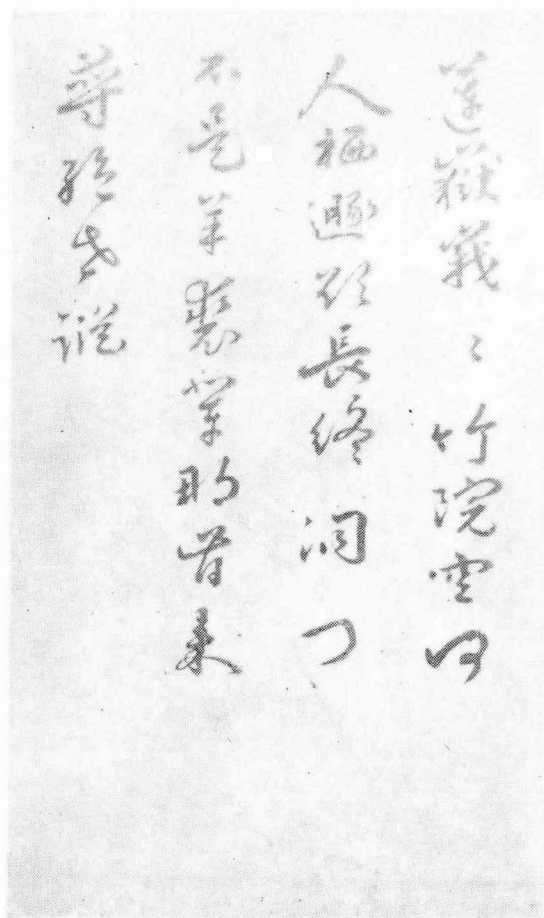


圖1 題詩：第1葉(蓮獄)

二、山前茅店樹冥々 臨水柴門午不局 小市販鮮翁未返 家人挑網滿沙汀
 이 二首의 詩는 退溪의 眞蹟으로는 비교적 字體가 크며 또한 方嚴한 格이 그 典型이라 할만큼 고르게 나타난 例이다. 蓮嶽이라는 特殊한 畫目으로 보아서는 미리 畫와 詩의 內容을 맞추어 兩者가 거의 同時에 이루어진 같은 印象도 받게 된다. 그러나 한편 山水 畫格의 蒼古한 風으로 보면 退溪以前부터 傳來해오던 그림이 있어 어떤 緣分으로 해서 것



圖2. 第一圖 蓮嶽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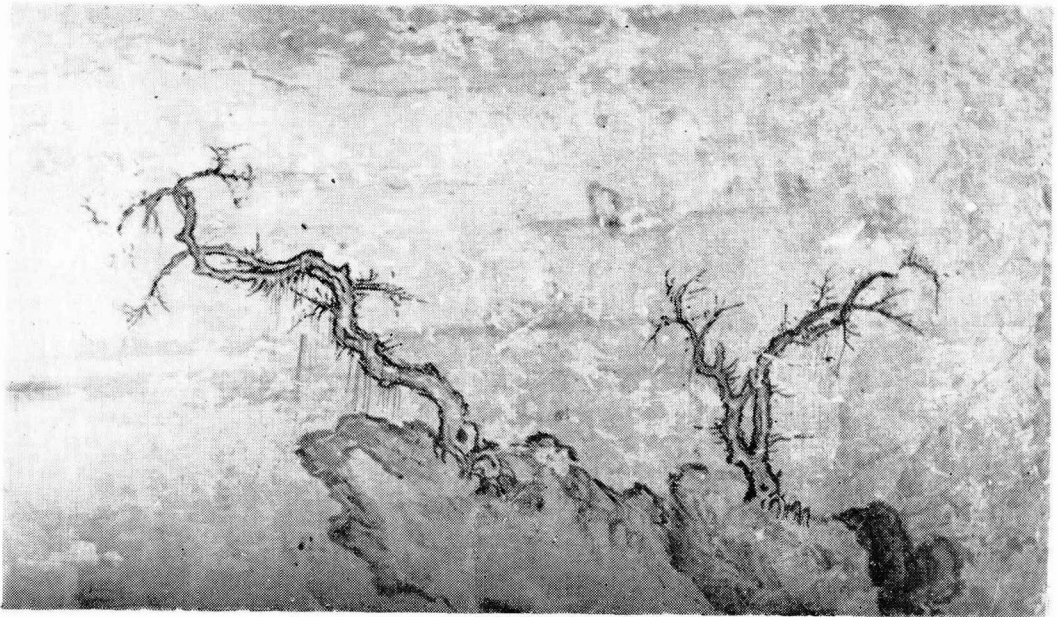


圖3. 圖2의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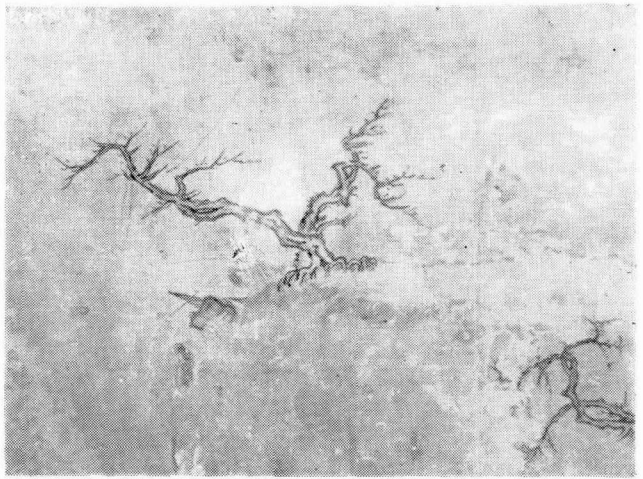


圖 4. 圖 2 의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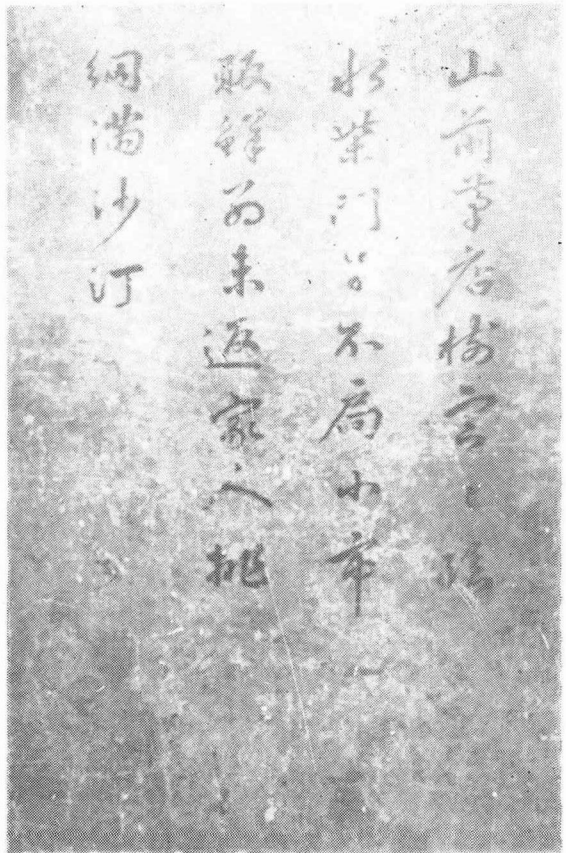


圖 5. 題詩第 2 葉(山前茅店)

退溪가 詩를 賦하게 되었다고 분주도 있겠는데 蓮嶽과 같은 特殊한 畫目은 特定한 形式이 있어 退溪가 다 른 說明이 없어도 具眼으로만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러한 詩를 題하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 편 이들 詩紙와 畫紙는 똑같은 薄壯紙이며 그 磨滅이나 虫蝕程度와 빛깔조차 똑같은 점으로 보면 詩, 畫가 同時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한편 退溪의 在世는 宣祖三年(一五七〇)以前인데 더욱 저슬러 朝鮮初期에 이르는 약 一五〇年間에 걸친 畫蹟은 그 傳存이 극히 稀貴하고 또 그 동안의 畫人 出現과 交替에 따른 世代的 變化가 繪畫資料로서 明瞭히 說明될 資料가 또한 傳存되고 있지 못하다는 現實에서는 그림의 作者가 누구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莫然하나 寥寥한 初期 약 一五〇年間に 이루어진 것으로 一但

간주케 될 畫蹟이 退溪의 題詩와 함께 併存하는 것은 朝鮮初期 繪畫의 資料面에 있어서나 그림과 題詩와의 관계知見을 더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一 例라 아니할 수 없다. 二首의 詩句는 그 內容으로 보아 앞에 잠깐 言及하였듯이 退溪 畫題에 있어 큰 比重을 차지하는 中國故事에 포함이 되는 新例라 할 것인데 그것이 일찍이 退溪集에 실리지 않았었다는 점으로 보면 새로이 添加되어야 할 資料일 것이 分明하다고 생각된다. 「蓮嶽」은 곧 「蓮花峰」을 이르 는 것이겠으며 辭海에는 一、黃山之峰、二、廬山之峰、三、衡山之峰、四、華山之峰、五、武夷山之峰等 五峰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⑤ 그 중 廬山之峰과 武夷山之峰 두 곳이 指稱될만한 곳이라 짐작된다. 즉 廬山之峰은 宋儒周敦頤의 築室故事가 傳하는 곳이며 武夷山之峰은 곧 武夷九曲溪로 이름 있는 거의 一般화된 素材로서 兩山이 모두 宋代의 巨儒들

과 直接관련된 곳이기 때문이다. 題詩의 첫머리는 蓮嶽峩々로서 작되는데 右便主山の 봉우리는 外形上 蓮花와 비슷한 形狀이고 드높은 모양이 峩々한 맛을 十分 지녔다. 이 한가지만 보더라도 그림과 詩句의 形式과 內容이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앞에서든 순간 말하였지만 그림과 題詩가 한때에 이루어진 것이냐 그림이 앞섰느냐 하는 가름은 까다로운 문제이겠으나 그러나 蓮花峰의 一定形式이時期를 달리한 退溪의 題詩로서 이어진다고 보다는 同代名手の 그림에 詩 한首를 賦하는 일이 常例일 것이기 때문에 그림의 作者는 누구인지 밝히기 어려우나 退溪와 同代의 名手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림의 作風에는 아직도 五代、北宋의 華北山水의 餘韻이 짙고 더우기 蒼古한 風



圖6. 第2圖 全景(山前茅店)



圖7. 圖6의 部分

을 보이는 것은 近景의 樹法과 岩法으로서 특히 樹의 根幹枝法에서는 許道寧이나 李公麟、郭熙의 風을 彷彿케 한다. 또 峰巒頭法이나 山皴法에서도 五代、北宋의 殘影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은 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朝鮮初期의 畫法、즉 玄洞子나 學圃、그리고 虛丹에 이르는 技法과 合致되는 面이 強하게 나타나 있다. 또 漁舟나 釣翁을 그린 極細한 붓끝과 按排가 餘白에 비겨날카로운 面이 있어 畫面은 技法의 蒼古한 맛과 함께 朝鮮初期의 畫風에 보이는 觀念的 格調를 十分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은 五代、北宋、華北畫派를 祖述하던 朝鮮初期의 畫風을 그대로 이어받은 退溪와 同代의 어떤 畫人에 의해 그려진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三、

위에 退溪의 若干畫題에 관해 走馬看山으로 粗略하게 살펴 보았는데 그 動機는 後尾에서 紹介한 詩二首와 山水畫二葉을 새로 보게 된 데 있었다. 朝鮮初期의 畫蹟이 그러하듯 退溪의 在世를 前後한 時期의 畫蹟 또한 극히 稀貴한 터이므로 이러한 手蹟들은 매우 珍貴한 存在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退溪의 다른 畫題를 담은 手蹟이 앞으로도 出現해서 관계자료의 究明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希望이 懇切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如上의 退溪畫題들로서 退溪의 繪畫的 遍歷을 대강 짐작하는 바이며 또 當代繪畫의 畫와 그 目、傾向과 靈川子申潛과 같은 四君子名手들의 手蹟과 관계가 있었음도 살펴볼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退溪集에 실린 畫題만으로 그와 같은 성격을 짐작할 수 밖에 없는 터에 그림을 隨伴한 手蹟이 出現했다는 데에 더욱 意義를 切感하는 바이다.

〈註〉

- ① 東儒師友錄 朴世采 原編 李世瑛補編 肅宗八年(一六八二年) 壬戌出刊、卷二五、二七、二八 退溪先生門人七十二。
- ② 答盧仁甫庚麟 庚申卷十二(前略) 且聞文烈公祠已建於院傍 此亦善措之一盛事 就中學文烈畫像手執數珠 此乃一時習尚爲 然雖賢者夫能免俗之 故然今置之學傍 實非所以示後學矜式之道。
- ③ 影堂 卷二十一(前略)
- ④ 影堂自家廟之制處 士大夫祭先之室 謂之影堂 蓋奉安畫像於此而祭之 故稱影堂 即祠堂也。
- ⑤ 此跋有難以示人者則遂使名區妙跡沈晦於篋藏而世不得見也 至因崔子粹報白知 澆愛賞此畫 許欲借工別摹 一本以相投寄此出於料外萬々之幸也。

⑤ 蓮花峰

- 一、黃山之峰在安徽省歙縣形似蓮花故名。
- 二、廬山之峰在江西省九江縣南下有董奉杏林遺蹟宋儒周敦頤築室峰下。
- 三、衡山之峰在湖南省衡山縣層嶂簇立形似蓮花。
- 四、華山之峰在陝西省華陰縣峰有上宮宮前有池生千葉蓮花。
- 五、武夷山之峰在福建省崇安縣上有蓮花洞。

(民俗博物館長)